

시카고 컵스 크리스 브라이언트(오른쪽)가 13일(한국시간)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와의 NLDS 3차전서 2-2 동점이던 5회말 2점홈런을 날리고 호르헤 솔레르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시카고(미 일리노이주) | AP뉴시스

컵스, 6홈런 폭발 'PS 신기록'

6회 솔레르 쐐기 투런…아리에타 PS 2승
캔자스시티 8회 5득점 역전승…승부 원점
추신수 3안타 불구 토론토에 패배 빛 바래

화끈한 홈런쇼가 가을 하늘을 수놓았다. 13일(한국시간) 펼쳐진 디비전시리즈(DS·5전 3승제) 4경기에선 모두 20개의 홈런이 터졌다. 아메리칸리그(AL)에선 벼랑 끝에 몰렸던 토론토와 캔자스시티가 승리를 따내 시리즈를 5차전으로 끌고 갔다. 특히 토론토는 홈 2연패 후 원정 2연승으로 리버스 스윕을 노리게 됐다. 7회까지 4점을 뒤져 탈락의 기운이 감돌던 캔자스시티는 8회에만 5점을 뽑아내며 기사회생했다. 내셔널리그(NL)에선 유일하게 정규시즌 100승 고지를 밟은 세인트루이스가 시카고 컵스의 불방망이에 눌려 탈락 위기에 처했다. 메이저리그 최고 부자 구단 LA 다저스도 뉴욕 메츠에 역전패를 당해 2년 연속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토론토 8-4 텍사스

포스트시즌 들어 잠잠했던 추신수(텍사스)의 방망이가 마침내 폭발했다. 2번 우익수로 선발출전한 추신수는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테이블세터 역할을 100% 수행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토론토는 1회초와 2회초에만 홈런 3방을 작렬하며 텍사스 선발 데렉 홀랜드를 무너트렸다. 텍사스는 0-7로 뒤진 3회말 추신수가 상대 선발 RA 디키의 폭투로 홈을 밟아 1점을 만회했다. 토론토는 디키에 이어 에이스 데이비드 프라이스를 구원으로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친 끝에 시리즈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캔자스시티 9-6 휴스턴

휴스턴은 아메리칸리그 승률 1위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7회말 카를로스 코레아의 2점홈런과 콜비 라스무스의 솔로홈런으로 6-2까지 앞서며 미닛 메이드 파크를 축제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어진 8회초 캔자스시티가 대거 5득점하며 7-6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9회초에는 에릭 호스머가 쐐기 2점홈런을 날렸다. 캔자스시티 마무리 웨이드 데이비스는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다.

●시카고 컵스 8-6 세인트루이스

컵스 에이스 제이크 아리에타는 6회를 넘기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지만, 활화산처럼 타오른 타선 덕분에 쑥스러운 승리를 챙겼다. 아리에타는 5-2로 앞선 6회초 제이슨 헤이워드에게 2점홈런을 맞고 강판됐다. 그러나 이어진 6회말 공격에서 컵스는 호르헤 솔레르의 2점포로 세인트루이스의 추격의지를 끊었다. 컵스는 6개의 아치를 폭죽처럼 그리며 포스트시즌 최다 홈런 경기 기록을 갈아 치웠다. 세인트루이스는 선발 마이클 와카를 비롯해 5명의 투수를 내세웠지만, 컵스의 맹타에 모두 자책점을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

●뉴욕 메츠 13-7 LA 다저스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던 1·2차전과 달리 초반부터 활발한 타격전이 이어졌다. 기선을 제압한 쪽은 다저스였다. 2회초 메츠 선발 맷 하비를 맞아 4연속안타로 가볍게 3점을 선취했다. 그러나 2회말 메츠가 5안타를 집중시켜 4점을 뽑아내며 역전했다. 기세가 오른 메츠는 3회말 트래비스 다나우의 2점홈런, 4회말 요에니스 세스페데스의 3점홈런 등으로 다저스 마운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앤더슨·우드 5이닝 10실점…다저스 3선발 '와르르'

통신원 수첩

원투펀치 커쇼·그레인키 '마지막 희망'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메이저리그 최강의 원투펀치 클레이튼 커쇼와 잭 그레인키를 보유했지만, 류현진이 부상으로 빠진 3선발 공백이 LA 다저스의 발목을 잡았다. 7-13으로 뉴욕 메츠에 무릎을 꿇은 다저스는 1승2패로 탈락 위기에 놓였다.

13일(한국시간) 뉴욕 시티필드의 분위기는 경기 전부터 과열됐다. 다저스 체이스 어틀리가 소개되자, 메츠 팬들은 야유 세례를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필라델피아 시절 '메츠 킬러'로 명성이 자자했던 어틀리지만,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살인적 태클의 주인공을 끝내 기용하지 않았다.

다저스 타선이 2회초 먼저 3점을 뽑아냈지만, 선발 브렛 앤더슨은 2회말 곧바로 실점했다. 집중 5안타를 맞고 4점을 내줘 다저스의 리드는 순식간에 신기루로 변했다. 3회말에는 트래비스 다나우에게 2점홈런까지 허용했다. 매팅리 감독은 앤더슨이 3이닝 7안타 6실점으로 크게 부진하자, 4차전 선발등판 가능성도 점쳐졌던 알렉스 우드를 2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렸다. 그러나 우드도 메츠 타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회말 요에니스 세스페데스에게 3점포를 맞는 등 2이닝 4안타 4실점으로 무너졌다.



LA 다저스 좌완 선발투수 브렛 앤더슨이 13일(한국시간) 시티 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NLDS 3차전 3회말 트래비스 다나우에게 2점홈런을 허용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뉴욕 | AP뉴시스

이날 두 팀이 기록한 안타는 13개로 똑같았다. 차이점은 정신력에 있었다. 어틀리의 보디체크에 발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시즌을 마감한 유격수 루벤 테하다의 몫까지 해내겠다는 의욕이 메츠 타선의 응집력을 낳았다. 1번 타자 커티스 그랜더슨은 홀로 5타점을 책임졌고, 테하다 대신 주전 유격수로 출전한 윌메르 플로레스는 3타수 2안타 2득점에 수비에서도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3승제)의 벽 앞에서 좌절할 위기에 몰린 다저스는 다시 커쇼와 그레인키의 어깨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포스트시즌 5연패의 수모를 안고 있는 커쇼가 13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질 4차전에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2년 연속 NLDS에서 고배를 마셔야 한다. 3일 휴식 후 등판하는 커쇼와 그레인키를 앞세워 2연승을 거두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한다 해도 1차전에 내세울 선발투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류현진의 빈자리가 포스트시즌 들어 더욱 크게 느껴지는 다저스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지난 시즌 OK저축은행의 우승 이후 V리그에선 스피드가 강조되고 있다. OK저축은행 세터 이민규의 빠른 토스와 송명근의 스피드가 지난 시진 챔피언 결정전에서 삼성화재를 꺾은 원동력이었다. 스포츠동아DB

V리그는 지금 '스피드 배구시대'

OK저축은행 이민규 낮고 빠른 토스 주목

V리그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화두가 등장한다. 최근 몇 년간은 조직력이었다. 삼성화재 성공시스템의 키워드라고 봤다. 모두들 따랐다. 많은 훈련과 생활관리,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연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올 시즌의 패러다임은 '스피드'다.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이 '업템포 1.0' 배구를 들고 나와 스피드를 화두로 내세웠지만, 사실 다른 구단은 OK저축은행의 성공사례에 더 눈길을 뒀다. 7시즌 연속으로 우승했던 삼성화재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무너진 것은 OK저축은행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해서였다. 시몬이라는 특급 외국인선수의 존재감도 있었지만, OK저축은행은 이민규의 빠른 토스와 송명근의 스피드를 앞세워 삼성화재의 블로킹을 무력화시켰다.

시행착오는 있었다. OK저축은행 석진욱 수석코치는 지난 시즌 삼성화재와의 5차전 패배가 계기였다고 기억했다. 당시 리그 1위를 다투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삼성화재가 3-0 완승을 거뒀다. 시몬은 삼성화재 레오와의 높이 대결에서 졌다. OK저축은행은 무려 9개의 블로킹을 허용했다. 그 경기 후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은 시몬과 면담해 "높이보다는 스피드로 가야겠다. 그 변화를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시몬은 자존심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가 챔프전 우승이었다.

●왜 스피드 배구인가?

배구는 장신이 유리한 경기지만 키 작은 쪽이 꼭 불리한 것도 아니다. 선천적 조건, 높이는 타고나지만 스피드는 훈련과 노력 여하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 현재 국제배구의 추세도 스피드다.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스피드에 매달렸다. 완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2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NH농협 2015~2016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우리카드전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서브 리시브였지만, 5세트 우리카드 김광국의 토스 높이가 승패의 분수령이었다. 1세트부터 4세트까지 낮고 빠른 토스를 했던 김광국은 위기가 되자 토스가 높아졌다. 4세트부터 체력이 떨어져 타점이 낮아지던 군다스에게 높고 느린 토스는 부담스러웠다. 현대캐피탈의 블로킹이 군다스를 잡아냈고, 거기에서 승패가 갈렸다.

물론 현대캐피탈의 업템포도 완벽하진 않았다. 25-22로 이긴 1세트를 제외하고는 안정감이 떨어졌다. 특히 2·3세트에 나온 15개의 범실은 빠른 토스가 공격수와 엇박자가 날 경우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다. 최태웅 감독은 "이겨서 좋기는 하지만 원했던 배구는 아니다. 빠르다고 능사는 아니다. 공격수가 치기 좋은 스피드를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 더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카드 김상우 감독은 "팀의 스피드는 세터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세터가 스피드의 키를 쥐고 있지만 토스를 소화하는 공격수의 움직임, 리시브의 높이도 중요하다. 11일 한국전력을 3-0으로 누른 대한항공도 세터 한선수의 가세로 스피드가 빨라졌다. OK저축은행은 개막전에서 여전한 스피드로 삼성화재의 추격을 뿌리쳤다. 지금 V리그는 속도와의 전쟁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승승장구 헤인즈·문태종 '찰떡 궁합'

서로의 장점 활용해 팀 전력 극대화

오리온은 '2015~2016 KCC 프로농구' 개막 직후부터 승승장구해 10승1패(승률 0.909)로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오리온의 강세를 이끄는 주역은 애런 헤인즈(34)-문태종(40) 콤비다. 둘은 올 시즌을 앞두고 오리온에 입단했지만,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선수들처럼 찰떡 궁합을 보이고 있다.

헤인즈는 11경기에서 평균 27.0점·9.6리바운드·4.1어시스트로 전천후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문태종도 평균 15.8점을 기록 중이다. 오리온은 올 시즌 평균 85.1점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 42.8점이 헤인즈-문태종 콤비에게서 나왔다. 모비스의 챔피언 결정전 3연패를 이끈 유재학 감독은 "오리온은 본래 국내선수 구성이 좋은 팀인데, 농구를 알고 하는 둘이 만나 팀의 중심을 이루니 더 강해졌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헤인즈와 문태종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팀 전력을 극대화하며 '상부상조'하는 사이다. 척척 맞는 호흡에 서로 칭찬 일색이다. 문태종은 "애런(헤인즈)의 공격력이 좋다보니 상대 수비가 집중된다. 애런 덕분에 내가 공격을 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그동안 허버트 힐(전 전자랜드), 데이본 제퍼슨(전 LG)과 같이 좋은 선수들과 뛰었는데, 애런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편"이라며 헤인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헤인즈도 문태종의 존재가 든든하기만 하다. 그는 "문태종은 매우 영리하고 자신이 언제 나서야 할지를 잘 안다. 승부처에서 문태종이 득점을 올려주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정말 좋은 선수다"고 말했다.

한편 헤인즈는 13일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그는 1라운드 9경기에서 평균 28.2점·8.9리바운드·3.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헤인즈



문태종

연세대, 67-55 고려대 꺾고 챔프전 1승1패

연세대가 13일 연세대체육관에서 열린 2015 대학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3전2승제) 2차전에서 고려대를 67-55로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연세대 최준용은 27점·17리바운드로 맹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연세대가 고려대에 승리한 것은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이후 처음이다. 3차전은 14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